

No.20160817-001

제목: 추리는 하루에 두 시간만

저자: 키리샤 타쿠미

페이지수: 305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7월 15일



<내용소개>

만만치 않은 오타쿠들이 '비밀기지'에서 미스터리 사건들을 접수하고 해결해 나간다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척척 해결해내는 명탐정을 다룬 작품들은 셀 수없이 많다. 너무나 유명한 셜록 홈즈와 아르센 뤼팽 같은 고전부터 언제나 '범인은 이 안에 있어!'를 외치며 밀실사건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만화 주인공 김전일에 이르기까지. 허를 찌르는 탐정들의 활약을 지켜보노라면 '나도 한 번쯤?'이라는 상상을 하게 된다. 본격 미스터리로 지향하며 사건 자체의 트릭과 반전을 중시하는 신本格파 작가가 발표한 이 신작에서는 어떤 탐정들이 나타나 사건을 풀어나가게 될까?

가라오케를 개조하여 개별 공간을 대여하는 <비밀기지>. 이 곳의 주인 '미키'가 계약을 맺은 이용자들은 어째서인지 다 정상의 범주에서는 벗어나 있는 듯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특촬 히어로물 매니아 서클의 대표로서 전신 타이즈를 입고 노란색의 마스크를 쓴 코스프레 차림으로 활보하는 남자 '노란색', TV드라마 애호가 집단을 이끄는 '테레비', 열광적인 게임 팬 집단의 대표 '유우타'를 비롯하여 오컬트, 아이돌, 2차원 창작물 등 다양한 서브컬처에 빠져 있는 오타쿠들이다. 미키는 비밀기지에 출입할 때 최대한 평범한 사람처럼 하고 다녀야 한다는 이용규칙을 내세우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여느 때처럼 비밀기지에 미키와 노란색과 테레비가 모여 있는 자리에, 유우타가 이 곳에 '전국 어린이 컴퓨터 상담실'을 두고 싶다고 제안한다. 예전에 방영됐던 만화 캐릭터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등 동심이 가득한 질문들 가운데, "엄마가 추리는 하루에 2시간 까지만 하라고 한다"는 이상한 상담 의뢰가 등장한다. TV시청이나 게임을 2시간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추리라니, 이게 대체 뭘까 하고 다들 궁금해하지만, 고스로리(고딕풍+로리타 패션) 유괴 사건, 눈토끼 수수께끼, 인기 아이돌 멤버의 실종 의혹 등 많은 사건들 때문에 금방 잊혀진다. 얼떨결에 미스터리로 휘말린 오타쿠들은 탐정 역할을 맡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마지막에는 반전이 준비되어 있다. "추리는 두 시간까지만"이라는 내용의 상담을 의뢰한 소년 '타카소우'의 존재가 모든 사건의 열쇠가 된다.

이상한 어른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는 이상한 사건들. 책에 수록된 6개의 연작 단편들은 내용상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전체 한 편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본격 미스터리보다는 가볍고 해피 엔딩이기 때문에 작가의 기존 작품에 비해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목차소개>

추리는 하루에 두 시간까지 / 집에 돌아갈 때까지 유괴입니다 / 흥기는 한 사람 3백만엔까지 / 미행은 친구와 함께 / 미루어 짐작하지 않기, 내던지지 않기, 끌고 가지 않기 / 범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범인

<저자소개>

키리샤 타쿠미

1963 년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났다. 1999 년, 《도플갱어 궁: “열리지 않는 문” 연구회 유빙관》으로 제 12 회 메피스토상을 수상하였다. 20 세기 마지막에 등장한 신本格파 신인으로 주목 받으며 데뷔하였다. <“열리지 않는 문” 연구회>, <사립 키리샤 학원 미스터리 백서> 두 시리즈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0817-002

제목: 나는 공부를 못해

저자: 야마다 에이미

페이지수: 249

장르: 소설

출간일: 1996년 03월 01일



<내용소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고교생의 성과 순정을 유쾌하게 그린 연작 단편집

도발적인 내용, 독특한 문체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작가 야마다 에이미. 그녀의 작품은 동시대 3대 여류 작가로 손꼽히는 요시모토 바나나와 에쿠니 가오리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소설은 그녀가 90년대 중반에 발표한 소설로, 주인공은 역시 평범한 고교생은 아니다.

성적은 별로지만 세상엔 공부보다 대단하고 소중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17세 남자 고교생 '토키다 히데미'. 축구를 좋아하고 이성에게 인기가 많으며, 바에서 일하는 연상의 여자친구도 있다. 토키다는 아버지 없이 엄마와 외할아버지와 살고 있다. 불우한 환경일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이 가족의 일상은 유쾌하고 단란하다. 아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이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개방적인 엄마, 예쁜 할머니를 쫓아다니는 외할아버지, 한창 성에 관심이 많아진 나이의 주인공. 학교 친구들과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탓에 약간 붕 떠 있는 히데미는 교사들에게 불량학생으로 오해 받고는 한다. 그러나 그는 기성 세대가 규정지은 것에 대해 하나하나 의문을 던져볼 뿐이다. '불순한 이성교제'라니 어떤 기준으로 이성 관계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 세상에는 옳은 것과 틀린 것 두 가지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일까? 등, 토키다는 궁금할 뿐이지만 선생님들은 그를 그저 불량학생으로만 본다.

주인공은 사회적 시선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당당함을 지닌 캐릭터다. 독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물로, 한때 일본에서는 '히데미 신드롬'까지 불었을 정도라고 한다. 사실 제목의 의미는 "나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에 더 가깝다. 히데미는 성적으로 비관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단면을 발견해낼 줄 아는 용기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공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존재처럼 그려진 것은 아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고집으로 변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과 여자친구, 담임 선생님 등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과 같은 반 친구들의 행동에서 변화의 계기를 포착해나가며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간다.

세상에 대해 이런 저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이성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는 10대. 고교생 소설이지만 또래 독자층 보다는 이미 그 나이를 거쳐 온 사람들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책이다. 그 때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야마다 에이미의 특별한 학교 이야기에 동참해보자.

<목차소개>

나는 공부를 못해 / 당신의 고상한 고뇌 / 잡음의 순위 / 건전한 정신 등

<저자소개>

야마다 에이미

1959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메이지대학 문학부 중퇴, 1985년 《베드 타임 아이스》로 문예상을 수상하며 데뷔했고 이 작품은 아쿠타가와 상 후보에도 올랐다. 1987년에는 《소울 뮤직 러버즈 온리》로 나오키상 수상, 1989년 《풍장의 교실》로 히라바야시 타이코 문학상, 1991년 《트래시》로 여류 문학상, 1996년 《애니멀 로직》으로 이즈미 교카 문학상, 2000년 《A2Z》로 요미우리 문학상, 2005년 《슈거 앤 스파이스》로 다니자키 준이치로 상을 받았다. 그 외 작품으로는 《PAY DAY!!》, 《학문》, 《120%COOL》, 《타이니 스토리》, 《돈 없어도 난 우아한 게 좋아》, 《방과 후의 음표》등이 있으며 현대를 대표하는 인기작가로서 요시모노 바나나, 에쿠니 가오리와 함께 일본의 3대 여류작가로 손꼽힌다.

No.20160817-003

제목: DRY&WET: 두 가지 타입으로 해결하는 인간관계

저자: 야마시타 쿠니즈카

페이지수: 192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07월 08일



<내용소개>

오해와 엇갈림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심플한 사고방식 'DRY&WET'

직장인들의 직장 스트레스 원인 1위는 '대인관계'라고 한다. 과도한 업무량이나 적은 연봉보다도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상사 및 동료들 혹은 고객들과 부딪힐 때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장소를 직장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친구들,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친척들,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주 트러블이 발생한다. 각각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경험해도 사고방식과 가치관에는 차이가 생긴다.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 '차이' 때문에 충돌을 반복한다.

저자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엇갈림과 오해'로 표현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DRY&WET' 사고방식을 제안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6종류로 나눠 조합한 36가지의 인간의 행동특성 '바이오 에너지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사람들의 성향을 'DRY 타입'과 'WET 타입'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DRY 타입은 사람과의 관계나 사물에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뭔가 생각한 것이 있으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결과나 결론을 빨리 얻고자 하는 즉단즉결 행동파다. 반면 WET 타입은 사람과의 관계나 사물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강하다. 미리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진중하게 움직이며,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 되어야 시작한다. 시간이 걸려도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타입이다. DRY타입의 사람이 시점에서는 항상 생각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동시에 WET 타입은 DRY 타입의 사람을 직감만으로 성급히 움직인다고 안 좋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만 나누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는 지적이 있을 법하지만, 대인관계 문제의 특성 상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다. 저자는 이 지표를 통해서 독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해보며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업무, 쇼핑, 식사, 여행 등 구체적인 상황 별로 'DRY&WET' 사고방식을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 실전 케이스 스터디를 수록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 책은 자신과 타인은 어떻게 다른지,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내가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이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는 행동 사이클을 익힌다면, 불필요한 엇갈림과 오해를 줄이고 행복한 인생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서문: <DRY&WET> 심플한 사고방식으로 <엇갈림과 오해>의 이해와 해결을

제 1장: 어디가 잘 되지 않았나? 당신에게도 <엇갈림과 오해>는 일어나고 있다 - 문제 파악

제 2장: <엇갈림과 오해>는 각각의 사고방식과 인식, 자세의 차이였다 - 원인의 추적, 해설

제 3장: 대인관계의 <엇갈림과 오해>를 해결하는 가장 심플한 사고 방식 - 문제해결 방법

제 4장: 트러블이 갑자기 생겨도 대처할 수 있다 - 'ASP'로 당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취해야 할 '행동' 선택을

제 5장: <DRY&WET>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다 - 장면 별 케이스 스터디 <실천편>

<저자소개>

야마시타 쿠니즈카

주식회사 벅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사장. 1980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추오대학 대학원 전략경영 연구과를 수료하였다. 경영석사(MBA). 후생노동성 인정 커리어 컨설턴트, 미국 CCE Inc. 인정 GCDF-Japan 커리어 카운슬러, SO9001/IRCA 국제 심사원, ISO9001/IRCA 국제 심사원, ISO14001/CEAR 심사원이다. 기업경영자 및 간부·임원의 코칭 / 기업 내 사업전략 입안과 추진 컨설팅 / 기업 종업원 연수의 실시 운영과 커리큘럼 제작 / 관리자 연구·젊은 중견사원 연수·직능 별 연수 등. 업종 불문 인재 활성화 연수를 연간 약 120회, 전국에서 실시 중이다.

No.20160817-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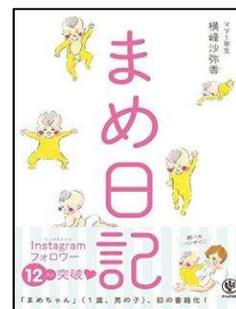
제목: 마메 일기

저자: 요코미네 사야카

페이지수: 128

장르: 육아, 코믹 에세이

출간일: 2016년 06월 15일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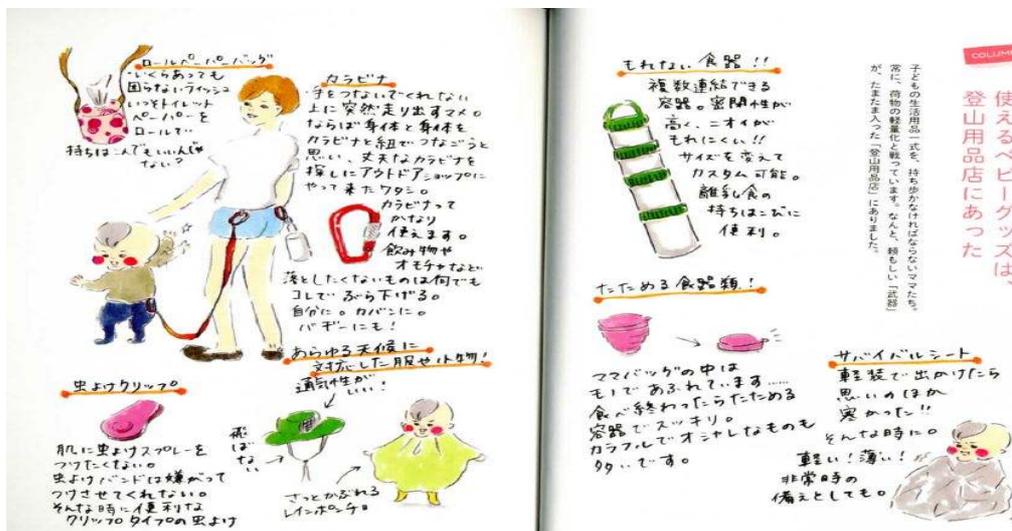
초보 엄마의 좌충우돌 육아 일기, 아이 생후 1년 간의 소중한 기록을 함께 하다

사진과 간단한 코멘트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이 코믹 에세이의 저자 요코미네 사야카는 무려 12만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사랑하는 한 살 배기 아들 '마메'와의 일상을 일러스트로 그려 공개하면서, 공감과 웃음을 이끌어내며 인기를 얻었다.

생후 1개월인 2015년 3월부터 1년이 되는 2016년 2월까지 거의 매일, 나날이 새롭게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재미 있고 따스하게 그려냈다. 저자는 스스로를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매뉴얼 타입' 인간이라 칭하고 육아에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털어놓는다. 그런 그녀가 정성스레 올린 그림과 멘트 속에는 초보 엄마가 경험한 좌충우돌 육아 경험이 생생하게 녹아있다. 그림과 내용이 귀엽다는 반응과 더불어, 비슷하게 아이를 키우며 고생 중인 엄마들의 공감 코멘트가 빗발친다.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일러스트 외에도 육아에 도움이 되는 칼럼과 출산 장면이 만화로 추가 수록 되어 있다.

태명인 '마메(콩알)'는 엄마이자 저자의 이름 '사야(콩깍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매번 '하트'를 1만개 이상 기록하는 마메 모자의 일기를 읽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자.

<본문 이미지>





今や部屋の間から寝まで、**お風呂のお掃除や洗濯まで**、こんなポテンシャルが自分の中に眠っていたなんて。人間ってすごい!



偶然なのか、それとも今はリウマチの匂いに反応しているのか? 判断に困っていたのですが、**エアコンの掃除機**と「あるある!」とコメントするお母さん! 大変でした。後者のようです。



絶賛・後通期のママはどこにでもついています。トイレのドアを開けてしまうと、大泣きするので開けたまま用を足すのですが、**17時の**



いるんですか? なーんて言ってみたところで、**ママになってもオシャレして**

<목차소개>

- 에피소드1. 생후 1~3개월(2015.03~2015.05)
- 에피소드2. 생후 4~6개월(2015.06~2015.08)
- 에피소드3. 생후 7~9개월(2015.09~2015.11)
- 에피소드4. 생후 10~12개월(2015.12~2016.02)

<저자소개>

요코미네 사야카

일러스트레이터. 나가사키 출신으로 큐슈 지역을 거점 삼아 탤런트 및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다가 상경했다. 30세에 '마메'를 출산. 애드립이 서툰 매뉴얼 인간으로 육아와는 상성이 최악인 성격이지만, 노력하고 있는 1년차 엄마. 2015년 2월부터 사랑하는 아들과의 일상을 그린 일러스트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다. 15개월만에 10만 팔로워를 모았다. (2012년 6월 기준 12만명)

* Instagram: @sayakayokomine

* Twitter: @mameyokomine

* Blog: <https://sayakayokomine.wordpress.com>

No.20160817-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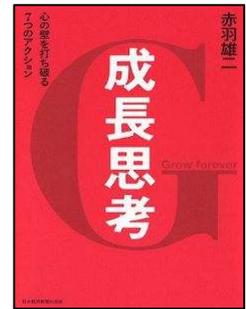
제목: 매일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한 성장사고

저자: 아카바 유지

페이지수: 208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07월 21일



<내용소개>

마음의 벽을 부수고 계속하여 성장하는 인간으로 남기 위해 익혀야 할 7가지 습관

모든 인간은 성장한다. 속도와 범위는 천차만별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자신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된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사고적인 면에서도 자란다. 나이만 먹는다고 내적·외적으로 훌륭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듯,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와 노력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장했다고 인식하고 기쁨을 얻는다.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면 괴로워진다.

이 책은 '성장'에 관한 자기계발서다. '0초 사고'로 단번에 베스트 셀러 저자가 된 아카바 유지는 자신의 회사 근무 경험과 유학 시절, 수많은 기업에서 카운슬링을 하고 강연과 워크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을 뿐이고, 적절한 계기와 자극이 주어지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은 우리 외면과 내면 모두에 있다. 자신감을 잃은 채 내가 성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단정짓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당연히 좀 더 나아지려는 의욕 같은 것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또한, 몇 년이고 같은 일이 계속 되어 새로운 도전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는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회사는 대부분 한 번 맡은 일을 계속 하는 시스템이다. 연차가 쌓이면 일에 능숙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변화에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융통성이 부족해질 우려도 있다.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성장을 이뤄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원인을 분석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 얼떨결에 됐다고 넘어가버리면 아무런 교훈도 얻을 수 없다.

저자는 성장하기 위한 기본 마음 가짐을 설명한 뒤, 몸에 익혀야 할 7가지 습관을 제안한다. 과감하게 목표치를 낮추기, 고통스럽지 않은 노력을 하기, 자신감을 갖기 위해 고민하기, 좋은 순환 시스템 만들기, 긍정적인 사고 하기, 컨디션을 유지하기, 동료의 힘을 빌리며 함께 성장하기 등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한다.

이론 소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자기계발서들과 달리, 읽으면서 감정과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쓰여진 책이다.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보조해 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성장을 방해하는 심리적 블록

제 2장: 성장 했던 것은 어떤 때일까

제 3장: 성장하지 하지 못했던 어떤 때일까

제 4장: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

제 5장: 성장하기 위한 7가지 액션

액션1. 과감하게 허들을 낮춘다

액션2. 고통스럽지 않은 노력, 즐거워지는 노력을 한다

액션3. 자신감을 갖기 위한 공리를 한다

액션4. 좋은 순환 시스템을 만든다

액션5. 포지티브 사고를 몸에 익혀라

액션6. 컨디션을 유지하는 특별한 연구를 한다

액션7. 타인의 힘을 빌려, 동료와 함께 성장한다

<저자소개>

아카바 유지

1978년 도쿄대학공학부 졸업 후, 고마쓰 제작소에서 건설현장용 덤프트럭 설계 및 개발을 맡았다. 1983년부터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유학하며 기계공학 석사, 석사 상급 과정을 수료했다. 1986년에는 맥킨지에 입사하여 경영전략 입안과 실행 지원, 신조직 설계와 도입, 마케팅, 신사업 시작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1990년, 맥킨지 서울 사무소를 처음부터 시작해 12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 기업 특히 LG 그룹의 세계적인 약진을 뒷받침 했다. 2002년, <일본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벤처 회사>를 하나라도 많이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브레이크 스루 파트너즈 주식회사'를 공동 창업 하였다. 최근에는 대기업의 경영 개혁, 경영인재 육성, 신사업 창출, 오픈 이노베이션에도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있다. 《0초 사고》, 《신속함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만화로 배운다! 맥킨지식 로지컬 씽킹》등의 저서가 있다.

No.20160817-006

제목: 하지 않겠습니다!

저자: 이구치 아키라

페이지수: 223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07월 19일



<내용소개>

‘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인생에 가까워지는 자기계발서

일본에서는 2010년쯤부터 ‘단사리(断捨離)’라는 말이 생겨나 쓰이기 시작했다. 요가 및 소승불교의 수행 중 ‘단행, 사행, 이행’을 응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것을 끊거나 버림으로써 물건이나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뜻이다. 이미 우리 생활 전반으로 퍼진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과 비슷하다. 단사리는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남겨둬야 하고 무엇을 끊어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막상 버리려면 혹시 모른다는 미련과 애착이 발동해 결국 다 남겨두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 책은 단사리 혹은 미니멀리즘을 사고와 행동 면에 적용해 볼 것을 권한다. 저자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의지’의 사용 방식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체력이 아니라 의지 에너지이며, 과하게 몸을 쓰면 체력이 바닥나듯 어떤 결단을 내릴 때마다 의지 에너지도 조금씩 사라져 간다. 아무리 훌륭한 노하우를 배워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동을 만들어내는 의지 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때 핵심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까’다. 누구나 동일한 양의 의지 에너지를 갖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쓰이는 힘을 아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 저자는 멀티태스킹에 부정적이며, 동기부여를 단숨에 강화하면 그만큼 실패하기 쉽다고 지적한다. 의지 에너지에 대해 충분히 살펴본 뒤, 일상에 숨어 있는 쓸데 없는 것들을 씻어내고 ‘하지 않을 것’을 본격적으로 정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 책은 시간, 인간관계, 돈, 상식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지 분석한다. 무조건 부지런히 움직이는 대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정말 해야 할 것만 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끈질기게 달라붙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강제로 참가하는 회식 자리에서의 대응 방법에서부터 시작해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처럼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을 갖는 법,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의지 에너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사항을 설명하며 ‘하지 않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직장인뿐 아니라 누구든 쉽게 실천할 수 있다. 더불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사고를 간접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인생은 <무엇을 하지 않을까>로 정해진다 - '의지 에너지'를 사용하여 일반 서민이 엘리트층을 이기려면?

제 2장: 시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 게으른 자라도 움직이는 자에 단연 이긴다!

제 3장: 인간관계에서 고민하지 않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 잘생기지 않은 내가 미남을 이기려면?

제 4장: 돈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기려면?

제 5장: 상식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 세상의 상식을 뒤엎고 대역전하려면?

<저자소개>

이구치 아키라

대표이사.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중·고교 시절 따돌림을 당하고 다섯 번이나 전학을 반복했다.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절망하여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도망치고 자 스무살에 뉴욕에서 유학한다. 인생을 바꾸기 위한 자기계발·심리학·하이퍼포먼스학을 배웠지만, 우울증과 자살미수로 도망치듯 귀국하였다. 그 뒤 어떻게든 자력으로 영어 세미나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창업하였다.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여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는 일의 중요함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비즈니스와 투자 면에서 차차 성공해 나간다. 세미나 강사와 코치로서 활동 폭을 넓혀왔으며 근래에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 대만,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수 천명 규모의 세미나를 열어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저서로는 《인생의 9할은 도망가도 된다》, 《멘토를 발견하면 인생은 9할이 정해진다》등이 있다.

No.20160817-007

제목: 마스라오(용기 있는 남자) 예찬

저자: 야마자키 마리

페이지수: 228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6년 08월 10일



<내용소개>

만화가 '야마자키 마리'가 편애하는 남자 중의 남자들, 용기 있는 남자 예찬론

요즘 시대에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말처럼 구태의연한 것도 없다지만, 그래도 'XX남'이나 'XX녀'처럼 그 때 그 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캐릭터를 강조하는 신조어가 끊임없이 나온다. 오랜 기간 남성에게 붙어있던 필수 덕목은 용맹과 용기였다. 이 책 제목에 등장하는 "마스라오(益荒男)"는 1) 용기 있는 훌륭한 남자, 강한 남자, 장부 2) 무인 3) 사냥꾼이라는 뜻을 지닌 일본어다. 전통적인 '남자다운 남자'의 이미지에 가깝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마스라오'라고 부를 수 있는 남자들이 있긴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아베 히로시 주연의 영화화로 유명해진 <테르마이 로마이>의 저자, 야마자키 마리가 용기 있는 남자들에 대해 쓴 에세이다. 그녀는 서문에서 '남자는 지구에서 가장 생각 없고 무책임한 생물'이라는 독설을 날린다. 합리성도 필연성도 없는 것에 폭 빠지거나 주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가장 남자가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살살이 뒤져, 용기 있는 남자 25명을 선정하고 각 인물에 대한 감상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서술하였다.

아내도 있는데 자식도 남기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꾸준히 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 9번의 결혼 이력에 배가 나와도 죽을 때까지 연애남이었던 비니시우스, 아이 주제에 우주와도 같은 관대함의 소유자인 영화 속 주인공 소년 조슈에, 다른 차원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스티브 잡스, 실제로는 상냥하고 수다를 좋아했던 화가 보티첼리, 알려지지 않는 자신을 찍은 사진가 만 레이, 인간미 넘치는 축구의 신 가힌샤 등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고, 현실과 허구의 작품 세계를 오가며 발견한 매력적인 남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의 조부와 편집장처럼 저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 고양이 '툼'도 섞여 있다. 체 게바라를 티셔츠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책 전반에 깔려 있는 유머 감각이 느껴진다.

무조건적인 예찬은 아닌데 반어나 풍자라고 할 수도 없다. 일반적인 용기의 가치를 실천한 남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남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자의 기준이 '기존 생각과 사

람들의 신뢰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분방함'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나칠 정도의 천진난만함, 무책임을 찬양하는 색다른 예찬론을 경험해보자.

<목차소개>

남자란 / 하드리아누스 황제 / 비니시우스 / 18대 나카무라 칸자부로 / 아베 코보 / 닛포(타카미 에이) / 소년 조슈에 / 토다 토쿠시로 / 오쿠무라 편집장/ 체 게바라 / 미즈키 시게루 / 톰 / 스티브 잡스 / 야마시타 타츠로 등

<저자소개>

야마자키 마리

만화가. 1967 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1984 년에 회화공부를 위해 이탈리아로 건너가 피렌체의 미술학교에서 11 년간 유화를 배웠다. 그 후 중동, 포르투갈, 시카고를 거쳐 현재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 1997 년 만화가로서 데뷔, <테르마이 로마이>로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단편상을 수상하였다. 동 작품은 영화화 되어 베스트 셀러에 오른다. 기타 작품은 만화 《스티브 잡스》와 《플리니우스》, 에세이 및 평론 《남성론 ECCE HOMO》《국경 없는 삶의 방식》《야마자키 마리의 편애 르네상스 미술론》 등이 있다. 2015 년도 문화청 예술선장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No.20160817-008

제목: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노력: 성과로 이어지는 '노력'의 7가지 조건

저자: 야마나시 히로카즈

페이지수: 240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07월 23일



<내용소개>

맥킨지에서의 25년에 걸친 업무 경험으로 깨달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노력'의 비결

학창시절을 떠올려보자. 언제나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하는데 성적은 의외로 높지 않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공부를 덜하고 놀 만큼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은 더 높게 나오는 친구가 있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위 반응은 '머리가 좋아서', '원래 똑똑해서' 일 것이다. 물론 선천적으로 학업적 재능이 더 뛰어나서 남들보다 덜 공부하고도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하지만 후천적인 노력도 엄청난 변수다. 정말 지능이 높아서 책 한 번만 훑 보기도 완벽히 응용까지 해내는 이들은 소수다. 대부분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손에 넣게 된다. 그렇다면 노력만큼은 나무랄 데 없는 전자의 친구들은 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일까?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몇 시간을 앉아있어도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시간낭비다.

한 사람의 몫을 해내야 하는 사회인이 되면, 그저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자는 노력에도 '좋은 노력'과 '나쁜 노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성과로 연결되는 것, 목적이 명확한 것, 목적 달성까지의 시간 기한을 의식하는 것, 생산성이 높은 것,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중간 단계에서도 성취감과 성실성을 느낄 수 있는 것, 성공을 위한 패턴을 얻을 수 있는 것, 스스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 이상 7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에 비로소 좋은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좋지 않은 노력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과 환경의 벽을 부수고 업무에 좋은 흐름을 만들며 노력의 질을 바꿔야 한다. 그 다음 목적과 과제를 명확히 한 후에 통찰과 가설 세우기를 통해 사고의 요체를 만들어나가는 '사고방식'을 익혀야 한다. 업무의 기본을 배우고 구체적인 시간관리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노력의 효과를 최대화 하는 시간 활용 기술, 노력을 진화시켜 스스로의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행동 방식 또한 '좋은 노력'으로 향하는 중요한 축이다. 마지막으로 동료 및 주위 사람들과 함께 좋은 노력을 행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모든 업무는 결국 팀 단위이기 때문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좋은 노력'이라는 사실을, 저자도 세계 최대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서 25년간 다양한 업계의 업무를 경험한 후에 깨달았다고 한다.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업무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성과 없는 노력에 좌절하여 지친 당신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소개>

소개: 그 노력은 '좋은 노력'일까 '나쁜 노력'일까?

제 1장: 노력의 질을 바꾼다 - 일에 '좋은 흐름'을 만드는 룰

제 2장: 좋은 노력을 만들어내는 사고법 - '다음 행동'을 명확히 하는 사고 방법

제 3장: 좋은 노력으로 이어지는 시간 활용 기술 - 빠르게 움직여 '노력 효과'를 최대화 한다

제 4장: 좋은 노력을 진화 시킨다 -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는 행동 방법

제 5장: 타인과 함께 좋은 노력을 한다 -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업무 기술

<저자소개>

야마나시 히로카즈

1954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경영 석사를 수료하였다. 후지필름을 거쳐 1990년 맥킨지 앤 컴퍼니에 입사하였다. 1995년부터 파트너, 2003년부터 시니어 파트너를 맡았다. 소매업, 소비재 메이커 및 기타 업계의 기업 전략 구축과 조직변혁, 마케팅, 오퍼레이션 개혁 등 맥킨지 일본지사에서 가장 풍부한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쿄대학 공학부 대학원 TMI(기술경영전략학 전공)에서 <기업전략론> 수업을 지도하였으며 동 대학 EMP에서 <소비론> 강의를 했다. 2014년 맥킨지를 퇴사하고 이온 주식회사 집행 임원을 거쳐 특별 고문을 맡았다. 2016년부터 주식회사 LIXIL그룹의 이사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는 《프로보카티브 씽킹: 재미있어하는 사고》, 《심플한 전략》, 《맥킨지 프라이싱》, 《마케팅 프로페셔널리즘》, 《뉴 그로스 전략》, 등이 있다.

No.20160817-009

제목: 키우는 집

저자: 사사키 요시키

페이지수: 215

장르: 건축, 인테리어

출간일: 2015년 08월 29일



<내용소개>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공간으로서의 '집 키우기' 방법을 소개한다

시대가 흘러도 '내 집 마련'의 꿈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 외부로부터 지켜줄 나만의 공간을 가지려는 것은 본능일 지도 모른다. 다만 세부적인 형태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면 끝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복층이나 테라스·개인정원이 딸린 빌라, 땅콩 주택, 공동 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것들조차 성에 차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건축과 인테리어를 배워 짓기도 한다. 인적이 약간 드문 호젓한 산 기슭에 황토나 나무 등 친환경 재료만 이용해 단독 주택을 지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무수히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집을 '사는 것'에 이어 '만드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는데 이 다음에 나올 무언가가 또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주택 설계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건축가로서, 집 짓기에 대해 고찰하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다. 그는 집을 사는 것도, 만드는 것도 아닌 '키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집을 '키우는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집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수십 년 후에도 처음과 똑 같은 구조와 형태를 유지하며 지낼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방을 만들어 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일생 동안 손대지 않고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집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집 키우기'란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 짓기를 뜻하며, 앞으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며 구조 변화가 필요할 순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저자는 현관, 거실, 주방과 욕실, 침실, 아이 방, 수납 공간으로 세분화하여 '키우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 방법, 한 번에 일임하는 대신 하나하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해내는 집 짓기 등 원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팁을 공개한다.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분석해보고 표준 도면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집 키우기의 즐거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축 업계 종사자를 주된 독자층으로 삼은 듯한 책이지만, 어렵지 않도록 기본 개념부터 구어체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집 짓기에 흥미 있는 일반인들이 읽어도 괜찮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건축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접하며 자극을 받고 시야를 넓어질 것이다. 여러모로 새로운 지

혜와 정보가 담겨 있는 책이다. 언젠가 자신이 원하는 집을 손수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목차소개>

서장: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키우는 것>

제 0장: <키우는 집 만들기>의 비밀

제 1장: <신축>&<리노베이션>이라는 사고방식

제 2장: <그릇>에서 시작되는 집 짓기

제 3장: <구조>를 키우는 방법

제 4장: 돈의 시스템

제 5장: <배움>에서 시작하는 <공동 창조>의 프로세스

제 6장: 전부 한 번에 의뢰하지 않는 집 짓기

제 7장: <키우는 집 짓기>의 케이스 스터디

종장: <키우는 집>을 재분류하다

자료: <키우는 집 짓기>의 표준형

<저자소개>

사사키 요시키

건축가. 1962 년생. 1984 년 니혼대학 생산공학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8 년 니혼대학 이공학부 대학원 건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설계사무소와 요미우리 신문사를 거쳐 1996 년 유한회사 사사키 요시키 건축연구실을 설립하였다. 주택 설계 전문이지만 공동주택과 점포 설계에서도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맨션 리노베이션으로는 2015 년 주거환경 어워드 블루&그린 상을 수상하였다. 2011 년~2015 년 니혼대학 생산공학부 창조 디자인학과에서 겸임 강사를 맡았고, 현직에 이르렀다. 2013 년부터 사무소를 아사쿠사로 옮겨 '생각'과 '형태'의 장으로서 Thought-FACTORY 를 병설, 약 1000 권의 집 짓기 서적을 모아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집 짓기의 '배움'과 '창조' 공간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 홈페이지: <http://www.sasstyle.com>

No.20160817-010

제목: 멋쟁이 코디네이터

저자: 이시자키 나오코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3월 01일



<내용소개>

두 소녀가 '멋쟁이 코디네이터' 토끼의 도움을 얻어 예쁘게 변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치이'와 '요우' 두 소녀는 친구 유메의 생일파티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일요일 저녁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생일파티에 예쁘게 차려 와 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초대 받은 기쁨도 잠시, 옷장을 바라보며 대체 생일파티에 무엇을 어떻게 입고 가야 할 지 고민에 빠집니다. 곤란해 하던 그 때, 옷장 안에서 자신을 '멋쟁이 코디네이터'라고 소개하는 토끼가 깜짝 등장합니다. 치이와 요우를 도와주겠다며 복도로 나가자 여느 때와는 달리 색색깔의 문들이 두 소녀를 반깁니다. 빨간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온 세계의 아름다운 드레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각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 그 다음 파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번에는 다양한 신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방과 액세서리를 차례로 고르자, 토끼 마크가 붙은 문을 열고 어딘가로 이동하여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치이와 요우는 예쁘게 꾸민 모습으로 유메의 생일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알록달록한 그림을 따라 가는 것 만으로도 자기가 멋지게 변신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쁘게 꾸미는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4~6세의 여자아이들이 더욱 재미를 느낄 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이시자키 나오코

1986년 이바라키현에서 태어났다. 홋카이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근무. 작품으로 《딸기 파르페 엘리베이터》, 《햄버거 버스》, 《엄청 긴 상투를 늘어뜨린 영주님과 엄청 긴 수염의 임금님》가 있다.

No.20160817-011

제목: 무엇일까요?: 크레용으로 그리는 탈 것

저자: 타카우지 마사야키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4년 04월 02일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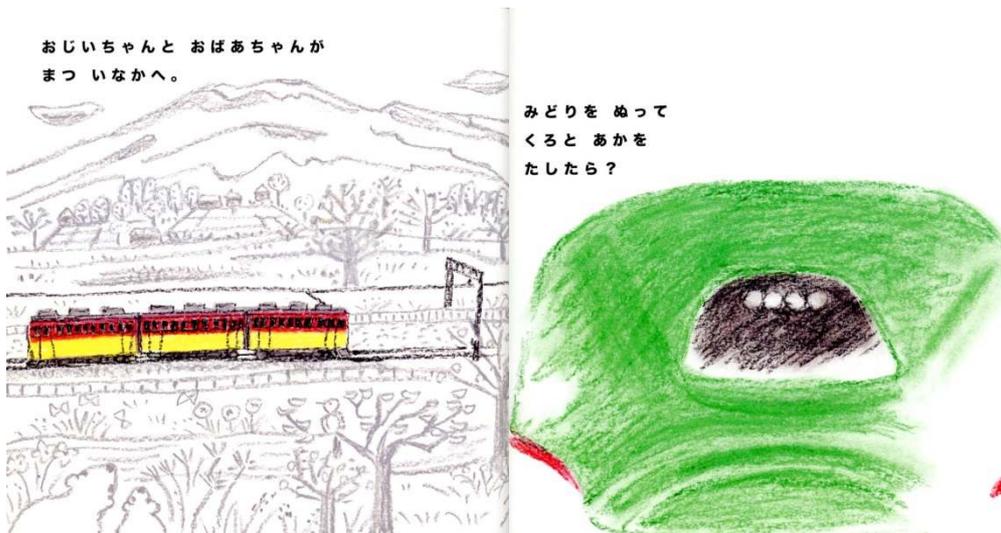
크레용과 재미있는 퀴즈로 다양한 '탈 것'에 대해 배워봅시다.

크레용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색칠 도구입니다. 종이 위에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원하는 모양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여러 가지 색의 크레용으로 다양한 탈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물으면 아이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크레용을 동그랗게 칠하면 무엇일까요?' 뒷장을 넘기면, 자전거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장난감을 사러 가는 길이라는 답변까지 연결해 낼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과 초록색 크레용을 칠하면 무엇일까요?' 뒷장을 넘기면, 시내 도로를 달리는 전차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옆 동네에 전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을 칠하면 무엇일까요?' 뒷장을 넘겨보니 자동차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이 색과 이 색을 칠하면 '무엇일까요?', '어디에 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앞 장에 문제가 나오고 뒷장에서 탈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크레용의 부드러운 색감과 색깔, 다양한 탈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타카우지 마사아키

일러스트레이터, 일본아동출판미술가 연맹 회원.

그림책 《이매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를 비롯하여 《일본 신 지도》, 《21세기 어린이 백과 우주관》과 교과서, 잡지, 단행본의 삽화, 벽화,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TV프로그램 타이틀 캐릭터 등을 다수 제작하였다.